

## 김 지사 새해 화두 ‘인재 육성·남해안 관광벨트’

3일 시무식서 전남 100년 비전 위한 도정 큰 줄기 밝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19년 새해 도정 화두로 ‘새천년 인재 육성’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19 시무식을 통해 “올해는 건국 100주년이자 전라도 새 천년의 원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서, 전남 100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올해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도정의 큰 줄기를 밝혔다.

김 지사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의 중심은 바로 내가 있는 곳’이고, ‘전남이 국토의 끝이 아닌 세계의 중심무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각 분야의 혁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하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나가지”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올해 경전선 전철화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SOC 분야와,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전남 발전을 담보할 굵직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며 “남해안철도 전철화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고속화철도 시대가 머지않은 만큼 이를 활용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개성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린 이후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 런던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에 대한 염원이 높아지고 있다”며 “바야흐로 세계 속 남해안 신해양관광시대에 발맞춰 부산·경남과 함께 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전라남도·마한문화권인 영산강과 섬진강, 광주 등 내륙으로 연결함으로써 전남을 한반도 H축을 떠받치는 국가의 새로운 중심 성장축으로 발전시켜나가지”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산업 육성에 공직자들이 앞에서 끌고, 도지사가 뒤에서 밀어주면 멋진 성과를 낼 것”이라며 “도민 스스로 내 삶이 바뀌고 있다고 체감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원년, 원하는 일을 하며 꿈을 펼치는 청년, 노후가 편안한 어르신, 육아 후에도 안정된 삶을 누리는 여성,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어민, 규모는 작아도 흔들리지 않는 소상공인의 모습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올해는 지방분권시대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자치를 확대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하면 주민 참여형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지방의 책임이 강화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므로, 이 기회를 잘 살려 전남이 발전하도록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지”고 다독였다. 올해 건국 100주년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한일합방 직전인 1909년 호남지역 항일 전투의병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목포 남교동, 순천 낙안마을 장터, 완도 소안도, 함평 문장장터 등에서 광범위하게 3·1운동이 벌어졌던 것은 물론, 임시정부에서 함평 김철 선생, 보성 박문용 선생, 순천 조경환 선생 등 많은 분들이 활동했다”며 “전남은 의롭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올해 3·1절에는 역사적 의미를 잘 살린 행사를 치르자”고 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각 분야 19명의 직원들이 성과 중심 도정 실현,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등 19개 실천다짐을 발표했다.

다. 또 출연기관과 사업소의 2019 기관 목표를 선언했다. 이어 기해년 새해 힘찬 출발을 알리고 전라남도의 행복 시책이 지역구석구석으로 퍼지기를 기원하는 대북 공연이 김 지사와 돼지띠 직원, 도립극단의 협연으로 펼쳐졌다.

이날 시무식에 앞서 김 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현충탑과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찾아 참배하고 기해년 새해 전남도정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남부권취재본부·윤규진 기자 jin2001@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 신년맞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합동 참배  
 함께 서구 상무시민공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 3일 오전 김동찬 시장의 의장, 장회국 시교육감, 5개 구청장, 시간부 등과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 동구청-조선대 거리 확장...“보행자 중심으로”

구청 별관 일부 철거해 푸른길공원-문화전당 산책길 조성 논의

광주 동구의 숙원 사업인 동구청-조선대 거리확장이 구청 별관 일부를 철거하고 보행자 편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이 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설명회가 열렸다.

시와 동구는 길이 375m 왕복 4차로인 구간을 현 20m에서 30m 폭으로 확장하려면 별관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지하 1·지상 4층에 연면적 6천500여㎡ 규모인 별관에는 동구의회와 보건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별관 정밀진단 때 ‘중·계축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철거는 문제없다’는 결

과가 나왔다.

거리확장을 위해서는 별관 각종 오른편 7.5m가량을 철거해야 한다.

별관 내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고, 보건소 일부 시설이 입주한 인근 창업지원센터로 기능을 분산해 줄어드는 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동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자동차보다는 사람 중심의 거리확장안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사업 구역 안에는 도로와 보행로가 모두 포함돼 있다.

동구는 왕복 4차로인 도로를 가변형 5차로까지만 넓히고, 나머지 확장 공간은 보행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한 푸른길공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잇는 산책길에 음수대, 쉼터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동구의 제안과 주민 여론을 두루 청취해 오는 6월 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설계안을 확정하면 토지보상절차에 돌입한다.

확보한 토지를 중심으로 공사에 착수해 내년 안에 사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토지보상에는 최소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기술 검토를 거쳐 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ghszk@



##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등 보물 지정

임란 이전 불상 중 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모두 전해지는 유일한 작품

전라남도도는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29호에서보

물 제2011호로 승격 지정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명종 20년인 1565년 수조각승(首覺刻僧),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해 조성한 작품이다. 지장삼

존(地藏三尊), 시왕(十王), 판관(判官), 사자(使者) 등 19구로 구성된 대단위 불상군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승축 45년인 1719년 일부 보수를 거쳤다.

지장삼존상은 망자(亡者)의 영혼을 위로하는 지장보살을 안치한 전각인 명부전(冥府殿) 중앙 불단에, 시왕상은 좌우 벽면에 봉안돼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불상 조각 가운데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 모두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지장보살상의 경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半跏) 자세를 취한 것으로, 조선 전기엔 드문 형식이다. 희소성이 있고 조형미가 뛰어나다.

특히 단정하고 사실적인 신체 표현과 우아한 형태미가 돋보인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함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
- 투명한 전력정보 공개
- 친환경 전력상품 개발
- 행복한 지역나눔 실천

그 중심에 항상 전력거래소가 함께합니다.

